

제주옹기의 문화유산 만들기 과정과 이해갈등*

염미경**

이 글에서는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들의 활동과 이해갈등에 초점을 맞춰 제주 전통옹기가 지역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문헌자료 이외에 전문가집단 및 과거 전통옹기 생산에 몸담았던 도공들과의 심층인터뷰자료를 사용하였다. 제주 전통옹기의 초창기 복원과정은 행정당국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거 전통옹기 제작에 몸담았던 도공들이 참여한 민간단체가 주도하였는데, 제주 전통가마와 전통옹기를 복원하고 그 가치를 정리하고 알리는 활동에 주력하였다. 점차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제주 전통옹기의 상업적 잠재력이 커지면서 전통 옹기의 복원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들 간에 이해 분화와 갈등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앞으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함께 제주옹기업의 성쇠가 지역사회 및 제주옹기업에 종사했던 지역민의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단어: 제주옹기, 제주옹기업, 제주옹기의 복원, 문화유산 만들기, 제주도

* 이 글은 2007년도 지역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으로 초고를 수정,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글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232-B00235).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부교수. mgyeum@jejunu.ac.kr.

I. 문제제기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은 경제, 정치, 문화를 새로운 양상으로 바꾸어놓았고 지역적 특성은 경제적이면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에 기반한 문화유산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평가와 전망이 널리 공유되면서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이 지역 활성화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Griffiths, 1995: 253-265). 이는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각 지역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고유한 지역성(locality)을 갖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쇠퇴 혹은 정체되거나 소멸된 재래공업¹⁾ 제품 또한 지역성을 가진 고유한 문화자산으로 평가되기 시작하였고, 각 지역들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강조하기 위해 재래공업 제품을 특산물화하거나 복원해 문화관광 자원화하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재래공업인 제주옹기업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다.

제주 전통옹기는 섬으로서 제주도의 시간과 노동, 화산흙, 불꽃의 문양, 섬의 바람, 제주도 자연의 색채를 담고 있고, 제주도 문화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제주도 지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생활용품이라는 점에서 민중의 실록으로 평가된다. 제주도는 지질학적 특성상 강수량은 많지만 수량의 대부분이 용암층 밑으로 복류하여 해안지대에 이르러 용천(溶川)하므로 제주도에서 식수의 공급과 확보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수의 운반과 보관을 위한 용품으로 옹기가 발달하게 되지만 근대화 흐름 속에서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를 거치면서 전통옹기 생산은 퇴조하게 된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 제주 전통옹기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통

1) 재래공업은 일반적으로 발생시기가 오래되었고 그 제품이 과거나 현재에 별 차이가 없으며 수공업이 추가 되는 가내공업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전근대적인 경영형태가 잔존하는 공업을 말한다. 대체로 재래공업은 그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여 발생하였고, 의식주에 관한 소비재가 주 생산품이다. 자금 원료 지향성이 강한 재래공업은 시장과 함께 자본과 노동측면에서 향토성이 짙고 자본의 영세성, 경영 및 설비의 전근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근대공업의 거대한 압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산업이라는 특징을 지닌다(조승현, 2004: 10-11).

옹기의 문화관광 자원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통옹기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대체로 수공기술이 주가 되는 재래공업의 발전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는 가내수공업 내지 농촌의 부업형태로 정체해 생산 공정이 기계화되지 않는 형태, 둘째는 근대화이후 생산수단이 근대화동력화 되면서 농업에서 분리돼 전문화되고 공장제공업의 단계로 이행했지만 가족노동을 주로 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는 형태, 그리고 셋째는 제2유형과 마찬가지로 근대화 이후 생산과정의 기계화근대화 속에서 근대적 중소기업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지역집단을 구성해있는 형태가 그것이다(조승현, 2004: 11-12). 이렇게 볼 때 이 글의 연구대상인 제주 전통옹기는 첫째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근대적 산업의 등장과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쇠퇴하였으나 지역의 문화유산, 문화관광자원으로 선택되면서 복원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글에서는 지역에서 사라진 재래공업 제품인 제주 전통옹기가 복원되고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과 계승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의 활동과 이들 간 네트워크 양상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시각과 방법

최근 지역의 전통적이면서 고유한 것, 그리고 경쟁력 있는 상품의 개발이 중요시되면서 지역의 재래공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래공업 제품은 적어도 근대 공업이 이식되기 전 지역 풍토에서 자생하고 생활 속에서 성장해 환경의 일부가 된 것들이다. 재래공업 가운데 상당수는 근대화과정에서 사라진 반면, 도자기, 주류, 유기, 목기, 죽제품, 삼베, 모시, 돛자리, 한지, 나전칠기 등 일부 재래공업 제품들은 지금까지 그 생산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또 다른 것들은 새로운 생활양식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침체 상태이거나 쇠퇴과정에 있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조승현, 2004: 1-2).

이러한 재래공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제사와 지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제적 현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재래공업의 입지와 변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리학에서 다뤄졌다. 먼저 사회경제사적 연구로는 전석담(1946), 김한주(1946), 권병탁(1969) 등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전석담은 조선 전기를 중심으로 농민의 토지 지배 관계를 논의하고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공물로 수공업 제품을 열거하면서 조선 수공업조직을 해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 김한주(1946)는 생산자의 사회적 신분에 기초해 조선시대의 수공업은 농민수공업인 부업적 수공업과 공장수공업·승려수공업·백정수공업으로 분류되는 전업적 수공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 한국전쟁 이후 수공업의 편성, 관영 수공업의 붕괴와 사영 수공업의 성장, 이에 따른 생산조직과 경영조직의 변화와 교환경제의 발달 등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권병탁의 연구(1969)는 우리나라 재래공업의 발달과정을 당시 전국 80세 이상의 노인들의 회상자료를 수집·분석해 자본주의적 맹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이러한 사회경제사적 연구들 이외에, 재래공업의 전개과정과 변천에 대한 지리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재래공업에 대한 입지론적 연구(노도양, 1969; 박찬석, 1976; 장미경, 1982; 김재희, 1983)가 주로 이루어지다가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개별 재래공업산지의 형성과정과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형기주, 1975; 조승현, 1984, 1985, 1992)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는 재래공업의 존립 기반을 구명하기 위한 생산유통구조에 대한 연구(박양춘·이철우·박순호, 1995; 이철우, 1991, 1997; 이청일, 1985; 한홍렬, 1989; 김상수, 1991)가 많다. 한홍렬(1989)은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유기공업과 목기공업에 접근하면서 제조공정과 기술, 원료의 구입 그리고 생산조직과 유통구조를 구명하였고, 이청일(1985)은 식물섬유 수공업인 한지, 완초제품, 그리고 모시 등 원료가 식물성인 수공업의 역사적, 지역적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지리학 등의 분야에서의 재래공업 관련 연구들이 재래공업의 연구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공업 산지를 구성하는 부문별업체의 경영 특성이나 생산유통체계 변화의 원인, 재래공업의 성쇠와 지역생활사의 변동을 연동시켜 살펴보려는 시도 등은 미약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지역발전전략의 하나로 산업사를 포함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²⁾’적 접근이다. 이 접근에서는 어떤 지역이 그 지역 고유의 이미지를 재구성해 상품화하려는 활동은 경제적 이윤을 증대시키려는 경제적 효과와 지역정체성을 확립시켜 그 지역주민들의 향토애를 고취시키려는 문화적 효과를 겨냥하고 있고, 결국은 지역 자원의 관광 상품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이 접근에서는 지역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역에 대해 헌신적인 자세를 갖게 하며, 이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사회통제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Ashworth and Voogd, 1990; Kearns & Philo, 1993; 신혜란, 1998; 정근식, 1998; 염미경, 2003).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지역개발전략에서도 지역이미지의 구축이 중요한데, 이는 관광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어떻게 연출하여 특정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에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역을 특별한 곳으로 표상하기 위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동원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도에서는 이미 사라진 제주 전통옹기가 선택되었고 이의 복원 움직임이 생기게 된 것이다.

제주 전통옹기와 제주옹기업에 관한 문헌자료로 주목할 만한 것이 우낙기의 연구(1965)로, 제주옹기의 대표 격인 식수 운반용 물항아리인 허벅의 주산지로 제주도 대정읍 구억리 일대가 소개되어 있다.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1966)는 제주도 답사보고서에서 제주옹기를 소개하였고, 한국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71)도 옹기제작도와 제작과정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1980년대 들어와 각론적 연구가 수행되는데, 옹기의 역사, 생산기법, 문양, 옹기공방의 현황, 가마의 구조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주옹기의 발생과정과 생산기법(양재심, 1987; 이동희, 1984; 이종창, 1996; 안정숙, 1989), 유통 및 지역별 특성(김경자, 1998), 문양(김영문, 1979) 등에 대한 연구들은 제주 전통옹기의 형태를 살펴보고 현재적 시점에서

2) 장소마케팅은 장소를 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추구되는 일련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포함하고 함축하는 현상으로,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주체들이 그들의 지역을 기업인이나 관광객, 심지어 그 지역주민들에게까지 매력적인 곳으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장소 이미지를 판매하는 다양한 노력들이다(Kearns and Philo, 1993: 2-3).

생산·판매되고 있는 옹기의 형태를 종류별로 비교해 옹기의 조형성과 그 가치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김은석(1990)과 이경효(1998)는 제주도 가마의 명칭, 구조, 축조방법, 현존 가마의 현황과 위치를 현지답사와 실측에 기반해 정리하였으며, 김미영(1983)은 허벅의 발생배경과 형태 및 장식을 분석해 전통기술을 전승하고 이를 관광상품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외에, 제주 전통옹기의 생산방식 복원에 주력해 그것의 보존과 계승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대표적인 연구로 강창언(1997, 2002, 2004, 2006a, 2006b)과 강창언·이경효(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 대부분은 제주 전통옹기의 역사와 생산기법, 문양과 조형성, 그리고 가마의 지역적 특성에 가치를 부여해 제주 전통옹기를 재발견하고 이를 알리거나 예술, 미학, 조형, 유적지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수행된 것들이다. 이에 반해, 제주도의 환경에서 어떤 주체들에 의해 옹기가 생산되어 유통되었는지에 관심을 둔 주목할 만한 연구로 오영심의 연구(2002)를 들 수 있다. 제주 전통옹기의 사회적 배경이나 생활환경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오영심의 연구(2002)는 과거 옹기생산지(구억마을)를 연구대상으로 해 제주 전통옹기의 생산 환경과 생산 및 유통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제주 전통옹기 생산의 지역성을 구명하고자 했다는 데 이 글의 분석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글도 제주 전통옹기 생산의 지역성에 주목하면서 최근의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과정과 이를 둘러싼 행위주체들의 활동과 이해갈등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제주 전통옹기가 복원되는 과정은 지역의 다양한 행위주체들 간 상호작용, 의사결정과정 등 사회조직적 측면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과정을 둘러싼 행위주체의 역할과 활동을 살펴보려면 복원되고 계승되는 측면만이 아니라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사회적 맥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권숙인, 1998: 17-18). 또한 누가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을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 참여한 집단 내 혹은 집단들 간 연계망이 지닌 특징은 무엇인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제주옹기업의 경우에는 전통옹기의 복원에 관심을 가진 민간단체나 과거 전통옹기 제작에 몸담았던 장인들, 이를 지원하는 행정당국 그리고 이의 유통(판매)을 담당하는 골동품점이나 토산품점의 활동과 이들 간 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³⁾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과정에 참여한 민간단체들과 행정당국의 활동에서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가?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에서 민간단체 내

부 혹은 민간단체들 간 관계, 이들과 행정당국의 관계는 어떠한 양상을 띠는가? 이때 과거 제주 전통옹기의 생산에 몸담았던 도공들은 어떠한 형태로 연루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한데, 이 글에서는 이를 살펴본다. 이때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도해오고 있고, 복원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들과 이들 간 네트워크에서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둔다. 특히,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과정에 작용하는 전통옹기의 복원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 과거 옹기생산지와 옹기제작에 몸담았던 도공, 그리고 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행정당국 간 네트워크 양상과 그것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문헌자료 외에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전문가집단과의 심층인터뷰 자료이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제주 전통옹기 복원작업과 이를 지원하는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기본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에 노력해온 민간단체, 즉 도예원과 행정당국 관계자들, 그리고 과거에 전통옹기 제작에 몸담았던 도공들이 조사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지역신문의 전통옹기 관련 기사와 주요 정보제공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도예원의 경우 세 곳의 대표와 관계자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주도청 문화관광교통국 관계자들, 과거 옹기제작에 몸담았던 생존해 있는 도공 13명이 이 글의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이다. 이외에, 전통옹기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마을주민과 청년들에 대한 심층인터뷰 자료도 수집하였다.⁴⁾ 인터뷰조사는 2007년 11월부터 2년

-
- 3) 제주옹기의 문화유산 만들기에서 제주옹기를 유통시키는 골동품점이나 토산품점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제주민속골동품의 유통, 즉 구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전통 골동품점(토산품점 포함)은 제주시 15곳, 서귀포시에 2곳이 있으며, 토산품점은 195여 개 정도가 분산돼 위치해 있다. 현재 제주시 노형동에 골동품점이 밀집해 있는데, 이곳에 골동품점이 밀집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신제주가 조성되면서였다. 그 이전에는 제주시의 구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다. 1995년 경 제주시의 새로운 중심지(노형동 서부산업도로 부근)의 골동품점 주인들이 나서 제주시 노형동에 ‘예술의 거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줄 것을 제주도 행정당국에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새로운 중심지에 위치한 골동품점들 간에 그리고 이들과 그 외 골동품점들 간에 의견 불일치와 제주도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무산된 바 있다. 최근 들어 다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따라서 이 글의 구체적인 분석대상에서 골동품점이나 토산품점은 제외하였다.
 - 4) 과거 전통옹기 제작에 참여했던 도공 13명과 전통옹기 복원에 참여하고 있는 도예원 3곳의 대표들에 대해서는 생애사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분석 상 필요한 내용만 사용하였다. 또

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2008년 7월부터 9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Ⅲ. 제주옹기의 문화유산 만들기를 둘러싼 이해갈등 양상

1. 제주옹기기업의 지역성과 제주옹기의 복원

제주문화가 제주도라는 풍토와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발달해온 것처럼 제주도 예문화 역시 풍토와 자연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 운반용 물병의 사용에 관한 문헌기록을 종합해보면, 늦어도 대략 17세기 후반 경에는 옹기생산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전라도를 기점으로 물품이 유입되고 반입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매매하던 물품은 제주도에서 생산되지 않았던 도기, 자기, 쌀 등의 물품이며, 이런 물품의 교류 양상을 통해 제주도에서 옹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시점과 기술유입 경로를 유추해볼 수 있다.⁵⁾ 실제로 옹기제작 기술이전 지역으로 전라도를 들며, 전라도에서 들어온 옹

한 이 글에서는 A와 C도예원에 비해 B도예원에 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었는데, 이는 B도예원의 경우 공동작업장이라기보다는 도공 개인과 그 가족 중심의 개인작업장 형태로 운영됐고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 네트워크에서는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의 분석에서 필요한 경우만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전통옹기축제를 주관하고 제주옹기박물관이 있는 마을주민과 마을청년회에 대한 자료는 마을이 과거 전통옹기 생산지였던 관계로 도공들과의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또한 마을청년들 중에 A와 C도예원의 전통옹기 복원에 연루된 인물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제주시에 위치한 골동품점상 대표들에 대한 심층인터뷰 자료도 수집하였으나 이 글의 구체적인 분석대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료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심층인터뷰 대상자 선정이나 수집된 자료의 선택과 해석에서의 도치 않게 필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있는데 이는 이 글의 자료수집방법 자체에서 오는 한계라는 것을 밝혀둔다.

- 5) 가마축조기술을 포함한 옹기제작 기술이 온전히 제주도 자생적인 기술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전래되어온 기술임을 생각한다면 초창기 제주도 옹기가마의 모습은 같은 시기 타 지역의 옹기가마의 모습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가마축조술의 경우 옹기제작술에 비해 단기간 내에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가마축조술을 가진 숙련된 기술자가 직접 제주도에 들어가 가마를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정선, 2010: 374).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오창윤(2010: 7-14)을 참조바람.

기제작 기술이 제주도 환경에 맞게 ‘제주적’으로 변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의 옹기가마는 돌가마 즉 석요(石窯) 형태로, 가마생산품의 종류에 따라 노랑굴, 검은굴⁶⁾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자생적인 기술로만 이루어진 것 이라기보다는 전라도로부터의 기술이전, 특히 기술자의 유입을 통해 가마축조기술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며⁷⁾ 이것이 점차 제주도의 환경에 맞게 토착화한 것으로 이해된다(김정선, 2010: 353).

18세기 후반 편찬된 제주읍지(『濟州邑誌』「大靜懸誌」道路條)에 ‘가미수 옹점’(加味數 甕店)이라는 옹기판매점의 등장에서 제주옹기의 생산과 판매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김정선, 2010: 364). 따라서 제주도에서 옹기생산의 시작은 명확하진 않지만 늦어도 17세기 후반 경에는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제주의 옹기가마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가마는 모두 7기가 남아있다. 이들 가마의 최초 운영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략적으로 1940년대 후반의 4.3사건을 거치고 플라스틱 옹기의 영향,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인해 1960, 70년대를 거치면서 대부분 폐요(廢窯)되고 극히 일부만이 1980년대까지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김정선, 2010: 374). 제주 전통옹기가 이 시기에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 또 다

- 6) 제주도의 옹기가마는 가마에서 소성된 기물(器物)의 빛깔에 따라 노랑굴(또는 황굴, 붉은굴)과 검은굴로 불린다. 노랑굴은 두 종류의 가마 중 하나를 지칭하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릇들을 구워냈던 가마로 노랑굴에서 구워진 그릇들이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노랑굴이라 불렀다. 또 다른 가마 종류가 물독이나 시루 등의 생활용기들을 구워냈던 검은굴이며, 구워져 나온 그릇의 색깔이 검정색을 띠기 때문에 검은굴이라 불렀다.
- 7)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전라도 강진과의 교류사에서 일정 정도 확인된다. 당시 뱃길로 가까운 거리였던 강진은 그릇문화가 강진(칠량면 봉황마을)에서 제주도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 제주도에 강진옹기배가 들어가면 늘 인기를 독차지했고 제주사람들에게 강진옹기는 꿈의 그릇이었으며 실제로 제주도에서 강진옹기 소비는 많았다(주희춘, 2008: 185). 제주도에 전라도에서 생산된 옹기와 제주 전통옹기가 공존했다는 것은 과거 전통옹기 제작에 몸담았던 도공들과 제주도의 골동품점 대표들과의 인터뷰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이들이 제주 전통옹기를 육안으로 구별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옹기 표면에 유약이 발라져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 즉 전라도에서 생산된 옹기는 훨씬 정교하고 매끄럽게 보이고 제주 전통옹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비교적 부유한 집에서 유약이 발라진 전라도 등지에서 들어온 옹기를 사용했다(심충인터뷰 결과 종합). 이 글에서는 제주옹기 제작기술의 유입경로나 유통경로 자체보다 제주의 환경에 토착화된 제주 전통옹기의 생산자로서 도공과 최근 전통옹기의 복원에 관여하고 있는 집단들에 주목한다. 전라도 강진옹기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주희춘(2008: 185-193)을 참조바람.

른 이유는 제주옹기 제작방식의 문제이다. 제주도에서 옹기생산은 철저하게 분업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기물을 성형하는 대장(도공), 토림⁸⁾(토래미)을 만들고 기물을 관리하는 건애장, 굴(가마)에서 기물을 소성하는 불대장, 가마축조를 맡아 하는 굴대장 등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굴(가마)은 마을 단위로 굴계(굴제)를 형성하거나 조직을 이루어 운영되었다. 이런 분업체제로 옹기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각각의 전문화된 영역에만 집중해 작업이 이루어졌고 옹기제작에 몸담았던 도공들이 옹기제작보다 수익성이 있는 일로 전업하게 되면서 옹기업은 점차 쇠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감귤농사가 시작되면서 과거 옹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전업하기 시작했으며, 중산간 일대의 개발과 경작지 확대사업 등으로 옹기 관련 유적들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제주 전통옹기에 관심 있는 소수 사람들의 주도로 전통옹기의 복원 노력이 있게 되고 전통옹기는 제주도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새롭게 부각된다. A도예원이 만들어진 것으로 시작해 기계로 토기화분을 대량생산하던 B도예원이 다시 옹기제작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0년대 제주돌가마도예연구소(2002), C도예원(2007), 그리고 과거 옹기업에 종사했던 도공들을 주축으로 해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2008)⁹⁾가 만들어져 제주 전통옹기 제작의 맥을 이어나가게 된다(오창윤, 2010: 12-13). 이러한 움직임은 배경으로 해 과거 제주옹기의 집산지였던 대정읍 구억리의 마을청년회와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가 주축이 되어 2009년 3월 폐교인 구억분교에 제주옹기 배움터라는 학생체험장을 만들어 운영해 왔고, 관련 유물의 수집과 채록 결과물을 모아 2010년 11월 제주옹기박물관¹⁰⁾을 개관하게 되기에 이른다.

현재 제주도에는 가마의 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 6기의 노랑굴과 1기의 검은굴

-
- 8) 전통옹기 성형기술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릇의 벽을 쌓는 토림(토래미) 혹은 타림이라고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그릇의 벽을 만들기 위해 떡가래 혹은 질판 모양으로 길게 흙 막대기를 만들어 그릇 벽의 형태로 한단씩 테쌓기하거나 코일처럼 감아올리는 방법으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 9) 2010년 현재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의 회장은 굴(가마)에 뿔감을 넣어 온도를 맞추는 일을 담당했던 불대장 출신의 강신원(81) 씨가 맡고 있다.
- 10) 이 박물관에서는 과거 옹기제작에 참여했던 장인들의 사진과 이력이 전시되었고, 150여 종 700여 점의 옹기를 수집해 이 가운데 50여 종 150여 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전통옹기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온 허은숙 씨가 관장을 맡고 있다.

이 남아있다. 과거 옹기생산지는 제주도 서부지역, 특히 대정읍과 한경면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대정읍 신평, 구역, 무릉2리, 조수2리 등이다. 이 지역들은 한때 마을주민 대다수가 옹기 관련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이 지역에서 생산된 옹기는 제주도 전역에 유통되었다. 이외에 인근 신도리, 고산리, 청수리, 산양리 등에도 옹기 굽는 가마가 있었다. 옹기를 굽는 가마가 있었던 터는 노랑굴 터 총 34기·대정읍 24기, 안덕면 4기, 애월읍 3기, 제주도시 3기, 검은굴 터 총 4기·대정읍 3기, 애월읍 1기가 있다(오영심, 2002; 김은석, 1990).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태가 남아있는 가마는 노랑굴 6기와 검은굴 1기가 전부이다. 다른 지역의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자연 경사면을 이용하여 축조된 등요이다. 노랑굴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가마에서 생산되는 기물의 색깔은 노란색 혹은 붉은색 계열로 산화 환경에서 번조된 기물을 생산하는 가마이다(김원룡, 1990: 205; 김정선, 2010: 375).¹¹⁾ 가마의 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 검은굴은 현재 1기만 남아있는데, 검은굴은 검은색 계열의 기물을 생산했던 가마를 지칭한다. 검은굴은 노랑굴에 비해 크기가 작고 내부에 별다른 시설이 없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띠고 있으며, 가마 벽체는 노랑굴과 마찬가지로 현무암으로 수직에 가깝게 쌓였으며 천장부분은 아치형으로 축조하였다(김은석, 1990: 24).¹²⁾ 현재 제주 옹기가마 축조술과 옹기 제작술은 제주도만의 모습으로 정착되었고,¹³⁾ 다른 지역의 그것과는 다른 외형으로 인해 세계 유일의 석요로 인정되고 있다.

대체로 지역의 재래공업에는 역사적 전승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 지역이 가진 지형, 지질, 기후, 지리적 위치 등 자연적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 요인도 작용하는데, 하나의 지역에 다수의 동업자 및 관련업자가 밀집하여 동일계통 제품의 생산에 종사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하나의 공장 혹은 생산지가 되면서 전통적 기술이 양성되고 기업경영상 유리한 경제성을 만들어낸다. 이

11) 제주도 옹기가마의 축조방식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은석(1990)과 김정선(2010)을 참조바람.

12) 다른 지역의 경우 형태에 의해 용(龍)가마(또는 대포가마, 빨불통가마), 등(登)가마(또는 노부리가마, 칸가마, 봉우리가마), 조대불통가마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중식(1983: 24-27)을 참조바람.

13) 물론 현재의 이러한 모습이 제주도의 초창기 옹기제작 당시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정선(2010)을 참조바람.

와 함께 재래공업은 지역성을 지니는데, 자급적 원료에 의존해 자생적으로 성장해 지역 중심의 수요와 결합하는 특징을 가진다. 원래 풍토에 뿌리박고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가공기술이 숙련되고 축적되어 온 재래공업은 지역사회와 유리되어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전승적 생업으로서 경영주체나 노동의 고착성, 지역사회의 융합성, 즉 지역성 혹은 향토성을 지닌다. 즉 재래공업은 그것이 입지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의 영향 하에 있고 이러한 특성은 원료와 생산기법 및 유통과정에서 잘 드러난다(이청일, 1991: 18-19). 이 점은 재래공업이 근대공업과 대비된 개념으로 ‘전통공업 혹은 고유공업, 특산품공업’으로 불리는 근거가 된다(辻本芳郎, 1978: 1-2). 재래공업이 지닌 지역성 혹은 향토성은 제주옹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 전통옹기 생산은 자취를 감추었다가 1990년대 제주 전통옹기의 가치에 관심이 두어지면서 복원 움직임이 생겨났고, 전통옹기의 문화관광자원화와 관련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주 전통옹기의 생산은 1960년대 신소재인 양은과 플라스틱 그릇이 나오면서, 그리고 옹기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업하고 가마들이 폐쇄되면서 전통옹기 생산은 사라지게 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와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 다시 등장하기에 이른다.

1990년대 후반 민간차원에서 시작된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 노력의 결과 전통옹기가마가 복원되었고, 2000년 대정읍에 A도예원이 문을 열면서, 그리고 한경면 조수2리에 B도예원이 개관하면서 전통옹기의 복원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고, 2010년 말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의 옛 구억분교 건물에 제주옹기박물관이 들어서기에 이른다. 2008년부터 박물관 조성작업을 시작해 개관한 제주옹기박물관은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를 중심으로 구억마을회와 청년회 등 지역주민들에 의해 마련된 공간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1970년대 초 사라진 제주 전통옹기가 옛 도공, 마을주민 그리고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 노력을 해온 사람들에 의해 제주 전통문화유산으로서 등장한 것이다(<한라일보>, 2005년 1월 6일자). 이는 제주 전통옹기에 대한 지역 내외의 관심이 커지면서 제주 전통옹기의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과거 전통옹기 제작에 몸담았던 도공들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을 배경

으로 한다. 그리고 제주 전통옹기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부각되면서 복원과정에 참여한 집단들 간에 복원 방향에서의 입장 차이와 생길 수 있는 성과의 분배를 둘러싸고 이해갈등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2. 제주옹기의 복원과정과 이를 둘러싼 갈등

1) 민간 주도의 제주옹기 복원 시기(2000년대 초반까지)

1990년대부터 민간 차원에서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 노력이 시작되면서 1994년 대정읍에 전통옹기 복원을 위한 공동작업장으로서 A도예원이 설립된다. A도예원이 설립될 때까지 이 도예원의 대표는 1980년부터 7년간 제주도 전역에서 가마터 47군데를 발굴하였고 제주도의 서부지역인 대정읍과 한경면 일부 지역에 도요지가 집중되었던 사실을 학계나 언론에 알리는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A도예원은 과거 전통옹기 제작에 몸담았던 도공들과 전통옹기 제작기술 전수생들이 모여 공동작업장 형태로 만들어진 민간단체이다. 초기 제주 전통옹기 복원작업은 A도예원, A도예원 대표의 리더십하에 수행되었다.¹⁴⁾ A도예원 대표는 제주 전통옹기 관련 시설들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되는 상황에서¹⁵⁾ 과거 전통옹기 제작에 몸담았던 도공들을 복원과정에 참여하게 만들면서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작업에 착수하였다.¹⁶⁾ A도예원 대표와 과거 전통옹기 제작에 몸담았던 도공들은

14) A도예원 대표에 의하면, 제주 전통옹기의 제작은 석요를 축조하는 굴대장, 옹기를 빚는 옹기대장, 흙과 빨감을 준비하는 건예장, 불을 때 구워내는 불대장 등 철저한 분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 전통옹기 제작에 몸담았던 도공들 대부분은 자신의 작업만 알고 있지 가마 축조방식은 잘 알지 못했고, 도공들 대부분이 7-80세의 고령인 관계로 전통가마 복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즉 1990년대 초까지 40명이 넘었던 전통옹기 기능인은 1990년대 후반 당시 16명만이 생존해 있었다(A도예원 대표와의 심층인터뷰 결과, 인터뷰 일자는 2008년 7월 12일자와 2008년 9월 20일자).

15) A도예원 대표는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아시아게임에 이어 올림픽을 치르면서 제주도 곳곳에 새로운 길이 나고 아스팔트 포장이 되면서 가마터를 비롯한 많은 유적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또 전통옹기를 만드는 도공들도 고령으로 한분한분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러다간 제주도 전통옹기의 맥이 완전히 끊겨버리겠다 싶더군요.”(인터뷰 일자는 2008년 7월 12일자).

16) 과거 제주옹기 제작에 몸담았던 한 도공은 “A도예원 대표가 여러 차레 찾아와 옹기를 다시 만들자고 부탁을 할 때는 이렇게 옹기가 다시 빛을 보게 될지는 몰랐다.”, “옛날과 비교해 지금도 모양새는 같지만 기술이 더 좋아져 옹기의 때깔이 더욱 좋아졌고 질도 매우 높아졌다.”고 했다(인터

1995년 11월부터 가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¹⁷⁾ 한편으로는 가마를 만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마터를 실측하고 정밀도를 작성하고 영상에 담은 작업을 하였다. 그렇게 해 1998년 12월 현재의 A도예원 자리에 60평 규모로 두개의 제주도 전통석요가 복원돼 1999년 12월 석요에 불을 지피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A도예원 대표는 과거 옹기제작에 몸담았던 도공들의 증언과 옹기조각들을 비교해 제주 전통옹기가 허벅류 36점을 포함해 200여종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120여종을 복원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얻게 된다(<한겨레신문>, 2006년 5월 24일자).

A도예원 중심의 제주 전통 가마와 옹기 복원 초기에 지방 행정당국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이는 A도예원 대표와의 심층인터뷰 내용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줄 몰랐어요. 처음에 여러 군데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계획서는 가져오라고 하는데 계획서 가져가면 막말로 들리려요. 나중에 알려진 거 보면, 엉뚱한 데는 크게 지원이 돼 있고. 그렇게 하니깐 그 다음부터는 ‘아 이거 (지원해)주지도 않을 것, 계획서는 완전히 그냥 비교하기 위한 그런 걸로 활용되는구나.’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출을 안했죠. 가져가지도 않았고. (중략) 행정적인 관심이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에 일반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려웠지요.”(A도예원 대표와의 인터뷰결과, 인터뷰 일자는 2008년 9월 20일자).

더욱이 초기 옹기복원 당시에 과거 옹기제작에 몸담았던 도공들이 연로한 상태였고 옹기제작기술 전수생의 수도 적어 어려움이 있었다. 즉 A도예원에서 초기 전통옹기 복원을 위해 노력한 도공은 9명이었지만 2명이 연로해 7명만이 참여하였고 전수생의 수는 3-4명 정도에 불과하였다(A도예원 대표와의 인터뷰결과).

한편, 2001년 8월 13일 A도예원에서 복원작업에 참여한 도공들 가운데 과거 제주 전통옹기 성형작업을 했던 한 도공이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허벅장

뷰 일자는 2008년 7월 12일자).

17) 가마축조 기술은 홍태권 씨로부터 김태수와 A도예원의 대표가 전수를 받았다. 제주 옹기가마는 석요이기 때문에 석공인 김태수로 하여금 전수받게 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하여 노랑굴이 완성되었고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주 전통옹기를 복원할 수 있었다(A도예원 대표와의 인터뷰결과).

기능보유자로 지정되게 된다. 제주 전통옹기 제작이 철저한 분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성형작업 이외의 영역에 몸담았던 모든 도공들이 지정되어야 하지만 옹기를 성형하는 대장만 지정되면서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도공과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에 참여한 그 외 도공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갈등이 생기면서 그리고 A도예원 전수생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A도예원에서 C도예원이 분리해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해 A도예원에는 2001년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도공만이 옹기제작과 관련해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해주고 있을 뿐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에 소속된 모든 도공들이 A도예원을 떠나 C도예원에 참여해오게 된다.

제주 전통옹기 복원에 노력해온 또 다른 민간 차원의 도예원으로 한경면 조수2리(옛 지명은 ‘붉은 못’)에 위치한 B도예원을 들 수 있는데, B도예원 관계자는 제주 전통옹기 복원노력을 해오면서 어려웠던 점으로 지방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전수생의 부족을 든다. 즉 B도예원 관계자는 초창기 제주 전통옹기 복원작업을 해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의 하나로 제주 전통옹기 제작기술 전수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들었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부서나 담당 공무원이 없어 어떤 행정적 지원이 없었던 점도 지적하였다.¹⁸⁾

이처럼 초기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은 이 두 도예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옹기복원과정에서 두 도예원 간에 상호교류나 협력은 거의 없었다. 또한 B도예원의 경우 1990년 이후 전통옹기 복원에 참여해왔고 한 도공을 중심으로 해 가족 중심으로 운영해오고 있어, A도예원에 비해 제주 전통옹기 복원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망 구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역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 제주옹기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까지 B도예원은 행정당국의 지원은 물론 언론으로부터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B도

18) 최근 들어 제주옹기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행정당국의 지원과 관련해, B도예원 관계자는 “과거 도로공사를 하면서 나온 흙을 좀 구입하려고 했더니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해 수장시켜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체험 교육장 운영과 관련해 약간의 행정 지원이 있기는 한데 그 정도는 미미하며 한번 행정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절차대로 전부 이행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더 편합니다.”라고 하였다(인터뷰 일자는 2007년 12월 18일자). B도예원은 2006년 9월 이후부터 제주 한경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주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전통도자기체험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다.

예원은 장식용 용기를 제작하고 제주 전통용기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서 매년 제주지역 학생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등 제주 전통용기 제작과 홍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재 B도예원 대표는 도예원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녀에게 용기제작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 전통용기의 초기 복원과정은 민간 주도로, 구체적으로 개인 중심의 복원작업에 과거 용기제작에 몸담았던 도공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때 지방 행정당국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제주용기의 문화유산 만들기와 이를 둘러싼 갈등(2000년대 중반 이후)

초기, 민간 A도예원 주도의 제주 전통용기 복원노력은 1998년과 2001년 제주 전통석요를 복원하는 데 성공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후 제주도 고유의 방식으로 용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용기 복원에 참여해오던 옛 도공들 중에서 용기 성형을 담당했던 도공이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4호(허벽장)¹⁹⁾으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제주 전통용기 복원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둔 이후 A도예원은 A도예원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고 제주용기 브랜드의 대중화를 위한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게 된다. 탐라문화제나 추사문화예술제 등 여러 문화행사에 참여하는가 하면, 여주도자기 엑스포나 서일본도자기축제에 참여해 용기전시를 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도자기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세계민속도자기 워크숍에 참가해 제작 시연을 했고, 하얏트리젠시초대전에서 관광공예품경진대회 등 각종 전시회 및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일본 와세다대학 세계의 토기라는 학술지에 초대되기도 하였고, 연 2회 대학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A도예원 대표와의 인터뷰결과).

이러한 A도예원의 활동에 대해 제주도 행정당국이 행정적 관심과 함께 일정한 지원을 하기 시작한다.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도공에게 한 달에 60만 원 가량, 기능 전수생들에게는 15-2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 행정당국 관계자와의 인터뷰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19)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허벽장’ 명칭은 2010년 ‘용기장’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작업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지원으로는 무형문화재 도공에게 한 달에 60만원, 무형문화재 보조에게는 20만원, 전수생에게는 15만원의 현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의 제주옹기축제에 각각 200만원의 축제 보조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러나 제주도 행정당국 차원에서는 제주옹기의 복원 차원이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복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아요. 제주 전통옹기 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보다는 소극적으로 주변 관리를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정도입니다.”(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관광교통국 소속 공무원과의 인터뷰결과).

이와 관련해 제주 전통옹기 복원작업을 주도해온 A도예원²⁰⁾ 대표는 문화재 보존과 계승에 대한 제주도의 지원시스템 문제를 지적한다. 제주도 행정당국에서는 행사나 전시회 등에 대해 행정적인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지원시스템 문제를 제주도 행정당국 관계 공무원과의 인터뷰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 행정당국은 무형문화재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도공 한분에게만 한 달에 60만 원 가량 지원하고 있고 전수생들에게만 불과 15-20만 원 정도 지원해주며 연 2회 행사 때 재료비 정도만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전수생들의 경우, 그것도 2-3년이 지나야 전수생으로 인정해주는데 15만원 내지 20만원 지원해주고 전수받으라고 하면 전수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A도예원 대표와의 인터뷰결과, 인터뷰일자는 2008년 9월 20일자).

“무형문화재²¹⁾로 인정이 되면 공개 행사비, 그러니까 잘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
- 20) A도예원에는 5명 정도의 전수생이 있었는데, 2000년대 후반 A도예원의 대표와 전수생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전수생들은 A도예원의 전수생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K씨가 개원한 C도예원으로 옮겨 C도예원에서 과거 전통옹기 제작에 몸담았던 도공들로부터 기술 전수를 받고 있다.
- 21) 중요무형문화재는 1962년도 문화재보호법이 탄생된 이후 1964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 제례악을 지정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가 시작되고 약 2년이 지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로소 지방무형문화재 보호제도가 생겨 지정을 하게 된다. 중요무형문화재(국가지정무형문화재)는 국가 차원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을 지정하는 것을,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각 시·도차원에서 보호할 만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전승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에게 매달 전승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중앙과 지방간에 전승지원금은 큰 차이가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한편,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한다. 이는

로 보여줘야 해요. 판매하고 그런 것들은 별개로 하고, 전시회도 열고 그 다음에 세미나도 열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학술적으로 중요성을 알리면서 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공개행사비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해요. 그리고 탐라문화재 행사 때라든지 시연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행사비의 평가에 들어가요. 탐라문화재 팸플릿 나오고 그런 것들은 모두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제주도가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을 하면 그걸 전승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 중에 평가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시회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시연이 있어요. 전시회, 공연, 시연 이런 것들은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행정당국에서 이끌어내고 있는 축제, 행사, 그런 부분에 초청해 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시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줘요.”(제주도청 문화관광교통국 문화정책과 담당자와의 인터뷰).

2000년대 후반 들어 그동안 제주 전통옹기 복원과정을 주도해왔던 A도예원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A도예원의 전통옹기 복원과정에 적극 참여해왔던 옛 도공들 간에, 특히 A도예원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도공과 그 외 도공들 간에 ‘특정인만 수혜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A도예원 대표와 그 외 전수생들이 분화되면서 제주도무형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된 도공들은 A도예원과 멀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옛 도공들은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A도예원 대표와 전수생 K씨의 사이가 안 좋아져 (우리와 같은) 옛날 도공들, 그러니까 옛날에 옹기 일을 했던 도공들이 오히려 애매하게 되어버린 거지요. 또한 A도예원에서 조금 일했던 분들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해버린 것이 약간 그렇게 되었지요.”(과거 건예장으로 옹기제작에 참여, 1932년생, 인터뷰일지는 2008년 7월 6일자).

“A도예원이 만들어진 뒤, 우리도 거기서 옹기를 구웠어요. 전수생 K씨도 같이 종사하다가 A도예원 대표가 ‘이젠 너희는 나가라.’고 했고, 그래서 K씨를 비롯한 전수생들이 A도예원에서 나와 버렸다고 해요. 우리와 같은 도공들에는 ‘뭐 그만 해라, 더 해라’는 말이 아직 없어요. 한번 모이라고 한 적도 없고 제주도 축제행사에도 ‘우리가 갑시다.’고 해 행사에 갔는데, 최근에는 그 연락도 없고…. 그것으로

끝난 거지 뭐. A도예원 대표와는 5년 전부터 함께 일했는데...”(과거 굴대장·건에장으로 옹기제작에 참여, 1931년생, 인터뷰일자는 2008년 7월 6일자).

이러한 A도예원의 내부 갈등은 2007년에 본격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A도예원의 전수생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 옹기작업장인 C도예원이 설립된다. 과거 A도예원에서 전통 옹기 제작기술 전수생으로서 참여했고 A도예원에서 나와 C도예원에 참여하고 있는 전통 옹기 제작기술 전수생 K씨는 C도예원의 설립배경으로 A도예원 대표가 전통옹기 전수를 위한 공동작업장 성격이 강한 A도예원을 개인 작업장화 한 점을 들었다. 즉 K씨에 의하면, A도예원 대표가 전통옹기 복원을 위한 공동작업장인 A도예원을 사유화해버린 결과 당시까지 전통옹기 복원노력에 힘써온 과거 전통옹기 제작에 참여했던 도공들과 전통옹기 제작기술 전수생들이 또 다른 공동 작업장으로 C도예원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K씨와의 심층인터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인터뷰일자는 2008년 11월 22일자).

“제주옹기는 어느 개인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화되어서도 안 되고 공공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작업하는 것, 이거는 공공의 목적입니다. 제대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대중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사회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본질은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계속 발전되어지는 것 ... 이게 발전이라는 거예요 ...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모두가 상업화돼버리고 그나마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곳도 상업화로 돌면서 개인화, 사유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A도예원의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C도예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 방향에 대한 A도예원 대표와 그 외 복원과정에 참여한 전수생들과 옛 도공들 간에 입장 차이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A도예원을 근거지로 해 A도예원 대표와 K씨를 비롯한 옹기 복원에 참여해온 전수생들, 전통옹기 제작에 참여했던 도공들이 팀 작업을 통해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에 성공하면서 제주 전통옹기의 상업적 잠재력이 커진 것을 그 배경으로 한다. 즉 2000년대 들어 제주 전통옹기의 상업적 잠재력이 확대되면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이나 몫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복원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전수생들과 도공들이 A도예원 대표가 그동안의 전통옹기 복원노력의 성과를 대표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으면서 촉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A도예원에서 전통옹기 전수생으로서 초기 옹기복원작업에 참여해왔고 C도예원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K씨와의 인터뷰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여기(대정읍 신평리)에 다시 작업장(C도예원)을 열게 된 이유가 A도예원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 후 지금 7-80세 되신 도공선생님들이, 마지막 생존해 있는 도공선생님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셨습니다. 그니깐 처음에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거기(A도예원)에서 완성을 보기를 기대하셨는데 그 완성을 못 보게 되니깐 도공선생님들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 불안해하시고 ... 그 뭐니까? 젊은 사람들에 대한 회의감이라고 하나? 그 개인적인 욕심에 대한 질타 이런 것들 때문에. ...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적인 욕심에 밀려났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삼십대에 전통옹기 복원 일에 참여해서, 이제 최고조에 오른 순간에 다른 일을 선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옹기 복원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했고... 저희한테 기술전수를 해주시고 그거를 끊임없이 애정을 갖고 가르쳐주셨던 도공선생님들을 ... 그냥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작업장(C도예원)을 열게 된 것입니다. ... 제가 여기에서 이 일을 포기하기에는 그때 쏟았던 열정이 너무나도 컸고 거기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애착이나 자부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거(전통옹기 복원작업)는 끝까지 가서 이걸 제대로 활성화시켜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어렵게 이것(C도예원)을 시작했습니다. ... 그러니까 제2기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까? ... (A도예원 중심의) 전통옹기 복원 1기의 노력으로 1단계 복원을 끝냈다면, 2기는 ... 저희(C도예원)가 이제 (이들)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전통옹기)의 대중화로 끌어내야만 됩니다. 그러니깐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까? 그러니깐 원형을 변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옹기를 완벽하게 구사해내고 후대 세대들에게 소통해주는 역할을 저희가 해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통옹기 복원 제2기의 출발점에 서있습니다. 저는, 저희는 그 시발점에 서있는 가장 선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C도예원의 K씨와의 인터뷰결과, 인터뷰일자는 2008년 11월 22일자).

전통옹기의 초기 복원을 끝낸 2000년대 들어서 A도예원의 복원노력의 방향과 C도예원의 전통옹기의 복원노력의 방향에서의 입장 차이를 K씨와의 인터뷰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제주옹기의 본질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옹기는 어느 개인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화되어서도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작업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 즉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통옹기가 계속 발전하는 것이 발전이라는 거예요. ... 제주옹기가 상업화되면서 (A도예원이) 개인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 그렇게 공공의 목적성을 갖고 전통옹기 복원을 하는

데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겨(C도예원)를 시작하는 것이고.”(전통옹기 제작기술 전수생 K씨와의 인터뷰결과, 인터뷰일자는 2008년 11월 22일자).

이처럼 2000년대 중반까지의 전통옹기 복원의 초기 과정이 민간 주도, 특히 A도예원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 후반 들어 제주옹기의 상업적 잠재력이 커지면서 향후 전통옹기 복원 방향과 추후 나타날 이익을 둘러싸고 복원 추진 주체들 사이에 입장 차이와 이해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C도예원이 설립되게 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노력은 A도예원을 중심으로 해 추진되어오던 것에 제주도 행정당국이 지원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졌고, 2000년대 후반부터 A도예원이 배제되는데 이렇게 된 계기 중의 하나로 A도예원 내부의 전수생들 간의 갈등과 A도예원 대표와 도공 한명을 제외하고 모든 전수생들과 도공들이 A도예원을 나와 C도예원을 운영하게 되고 옛 도공 대부분이 관여하고 C도예원과 제주도 행정당국의 일정한 연계망이 있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도예원은 제주도 문화재행정 비리를 폭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2008년 8월에 제주도무형문화재 지원금 수천만 원을 공무원에 상납했다는 내용으로 A도예원 대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제주도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주도무형문화재 허벅장의 문화재 전승시연 지원금으로 시연행사 때마다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일회 당 200만 원 정도의 정상규모 지원금에 수백만 원씩 더 보태어 지급했다가 나머지 차액을 관계 공무원이 되찾아갔다는 제주도 문화재행정 비리를 A도예원 대표가 폭로한 것이었다(<제주의 소리>, 2008년 8월 29일자).

최근의 전통옹기 복원은 C도예원이 과거 옹기제작에 참여했던 도공들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전통옹기 복원을 위한 전통 가마의 복원과 제주옹기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는 A도예원의 내부 갈등이 표출된 이후 A도예원 대표와 제주도 행정당국과의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옹기의 문화유산 만들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

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로서 제주 전통옹기에 접근하는 차원, 즉 전통문화와 문화재의 보존 차원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수준일 뿐 제주 전통옹기를 문화유산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존계승 혹은 장소마케팅으로서 지역활성화에 연계시켜야 한다는 방향성은 아직은 미흡한 상태다. 제주도에서 전통옹기의 복원은 주로 민간단체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제주도에서 전통옹기의 복원을 해온 민간단체들 간의 상호 연계망은 거의 발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통옹기 복원노력을 해온 도예원들과 제주옹기를 연구하는 대학 기관 사이에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제주도내 대학에서 제주 전통옹기 복원에 참여해온 연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옹기의 복원에서 대학기관 혹은 도예원들 간에 협력 네트워크는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A도예원 대표와 B도예원 관계자의 구술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2000년 전통 가마와 복원된 옹기를 공개할 때 대학이라든가 그런 데에 연계가 돼 그 작업이 이루어질 줄 알았죠. 그런데 2000년부터 한 3년 가까이 우리가 흙을 어렵게 구입해서 대학에 공급해 주었어요. 학생들에게, 대학 연구자에게도 많이 공급해드렸는데, 공급해주면서 ‘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와서 배우고 쓰십시오.’ 했는데, 대학 관계자는 ‘우리는 어떠한 흙도 다 쓸 수 있다. 흙만 팔아 달라.’고 해서 팔아주었는데, 한 3-4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 ‘당신네 흙 써가지고 작품 다 깨져버렸는데, 작품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큰일 났다.’고 해 당시 흙 값 다 주고 되돌려 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흙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중략) (B도예원에 대해) 장인은 다 장인이라고 붙이면 장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B도예원 대표는) 전통옹기 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도공들 명단에 지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안했습니다.”(A도예원 대표와의 인터뷰결과, 인터뷰일자는 2008년 9월 20일자).

“서로 각자 나름대로 (전통옹기에 대해) 연구하고 복원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쓰는 흙을 쓰고 가마를 쓰고 각자의 연구를 하는 거죠. ... 만약에 그런(A도예원과 함께 하는)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B도예원 관계자와의 인터뷰결과, 인터뷰일자는 2007년 11월 30일자).

2000년대 후반 들어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작업은 C도예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도예원은 초기 전통옹기 복원을 주도해온 A도예원에서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A도예원의 구성원 일부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C도예원과 과거 옹기생산지 마을, 그리고 지방 행정당국의 협력체제에 기반해 전통 가마촌이 새롭게 복원되었으며, 이를 문화관광 상품화사업과 연계시켜나가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주옹기박물관이 2010년 11월에 건립되기에 이른다. 이로써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옹기 일에 종사했을 만큼 번성했지만 산업화의 물결에 밀려 1970년대 초 소멸되었던 전통옹기가 40여년이 지나 이제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상징의 하나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제주 전통옹기의 마지막 남은 도공들과 기능인들의 참여가 있었고, 전수생과 과거 옹기생산지 마을주민들의 지원에 힘입어 제주옹기박물관은 건립될 수 있었다.²²⁾ 이 과정 속에서 2010년 6월 말 대정읍 구억마을(구억마을 전통옹기축제위원회) 중심으로 제1회 ‘구억마을 전통옹기축제²³⁾’가 개최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민간 주도로 추진돼왔던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작업은 2010년 11월 구억마을에 제주옹기박물관이 건립되면서 새롭게 제주 전통옹기의 지역문화유산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억마을은 과거 옹기의 재료인 점토구입이 손쉽고 땀값이 풍부해 옹기생산이 많이 이뤄졌던 곳이다. 따라서 구억마을 주민들은 제

22) 제주도 서부지역의 대정읍과 한경면 일대는 제주 전통옹기의 집중적인 분포지이다. 구억리, 신평리, 무릉2리, 조수2리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가마터가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구억리의 토양은 물빠짐이 잘되는 현무암 풍화토가 대부분이며 옹기가마가 만들어졌지만 옹기 제작에 필수적인 점토가 없기 때문에 인접한 신평리에서 점토를 가져다 사용하였다. 신평리에는 5명의 옹기제작 장인(대장)이 있었으나 구억리에는 35명의 대장이 있을 정도로 구억리는 과거 대표적인 옹기생산지로 알려져 있다(심충인터뷰자료 종합). 이렇게 보면 구억리는 제주옹기박물관의 최적지(最適地)라고 할 수 있다. 구억리 청년들은 폐교된 구억분교를 정돈해 2009년 3월 제주옹기배움터를 세웠다. 제주 전통옹기 관련 유물과 기록이 수집되면서 구억리에 제주옹기박물관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구억리에 인접한 신평리에 위치한 C도예원의 역할이 컸다(<제주의 소리> 2010년 12월 24일자).

23) 축제의 주요 행사로는 진흙 다지기 놀이, 토래미 제작 재현, 옹기 만들기 체험, 제주 전통옹기를 구워내는 가마인 노랑굴(제주도 지정 기념물 제58-1호)과 검은굴(제주도 지정 기념물 제58-2호) 둘러보기, 민속영화 감상, 그 외 진흙 다지기 등의 행사가 포함되었다.

주전통옹기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을 모아 폐교된 옛 구억분교를 리모델링하는 등 7개월여의 준비 끝에 2009년에 ‘제주옹기배움터’를 개관하여 옹기 만들기 체험은 물론 제주 전통옹기를 전시해왔다. 이 ‘제주옹기배움터’는 구억마을청년회와 과거 전통옹기 제작에 참여했던 도공들을 중심으로 해 C도예원 대표가 관련되어 있는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가 공동으로 주도해왔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0년 11월 구억마을에 제주옹기박물관이 건립되게 된 것이다.²⁴⁾

이와 관련해 제주도 행정당국은 제주도무형문화재 전승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능보유자를 세분화하는 등 문화재적 가치를 살리는 데 관심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2010년 5월 3일부터 10일까지 대정읍 신평마을에서 불대장과 도공장 분야의 옹기장 전승자 지정을 위한 시연 심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²⁵⁾ 여기에 A도예원과 B도예원이 전통옹기의 복원과 계승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고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까지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작업이 주

24) 이와 관련해 구억리청년회와 C도예원 대표는 “제주 전통옹기의 발원지인 구억을 중심으로 제주 전통옹기의 맥을 잇기 위해 제주옹기배움터를 열었고 이제 제주옹기박물관을 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 전통옹기의 전통을 전승·보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한다(심층인터뷰 결과).

25) 이러한 제주 전통옹기 제작 기능보유자의 세분화는 흙 준비에서부터 성형과 건조, 가마 축조와 소성 등 허벅 제작 과정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무형문화재 전반에 대한 가치 제고에 행정당국의 관심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문화재 명칭의 변경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길그릇과 오지그릇을 통칭했던 옹기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허벅을 포함한 제주옹기는 제주 전통생활문화의 하나로 재질에서부터 타 지역과의 차이가 뚜렷하고 제작과정 역시 철저한 분업화가 돼 있어 전승체계의 보완이 제기돼왔다. 이러한 기능보유자 세분화에 따라 허벅 성형을 맡는 허벅장과 불을 때는 불대장, 옹기성형을 담당하는 도공장이 추가되었다. 전승대상자는 1950-70년대 옹기제작을 생업으로 했던 이들로 10일 옹기 성형과정을 심사하고 성형옹기를 건조하는 과정(3-4개월)과 9-10월 불때기 작업을 통해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게 된다(<제민일보> 2010년 5월 4일자; C도예원의 K씨와의 인터뷰결과, 인터뷰일자는 2010년 5월 21일자).

로 전통가마의 복원을 통해 제주 전통옹기를 재현하고 그 가치를 정리해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면, 2000년대 후반 들어서부터는 제주 전통옹기의 문화유산 만들기 와 문화관광 상품화 차원에서 전통옹기의 복원과 계승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11월 제주옹기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제주도에서는 제주 전통 옹기의 문화유산화와 문화관광 상품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과거 시대의 건물들과 생산관련 시설들이 역사적·문화적 자산이라는 인식이 커졌고, 이렇게 되면서 근대 산업유산의 활용이 새로운 문화관광사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의 산업문화유산이 지역의 상징물이나 새로운 산업 창조의 거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재창조의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것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이를 지역 활성화와 연계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염미경, 2010). 제주옹기업과 같은 재래공업의 복원과 계승 노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완전히 소멸되었거나 쇠퇴한 재래공업을 지역문화유산으로서 복원, 계승해가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초기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작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전통옹기의 복원에 노력해오고 있는 한 전수생의 구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을 위해서는 우리와 같이 옹기 복원 작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보다도 제주 전통옹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 전통옹기를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홍보나 제주 전통옹기를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이 우선이 아니라 제주 전통옹기가 올바르게 알려지는 것, 제대로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인터뷰일자는 2009년 5월 21일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은 주로 전통가마의 복원과 옹기 제작기술의 전승, 전통옹기 관련 자료의 체계적 정리, 그리고 지역언론을 통해 제주 전통옹기의 보존과 지원 방안을 촉구하는 홍보 활동에 노력을 기울였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제주 전통옹기의 지역성, 문화성, 지역사회 변동과 제주지역민의 생활 변화를 연동시켜 살펴보려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제주옹기업의 복원을 둘러싼 복원 추진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전초 작업에 해당하며,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과정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이해갈등 양상을 고찰한 기술적 수준의 글이다. 아울러 이 글은 문헌자료와 심층인터뷰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수집된 자료 가운데 일부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되었을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전통옹기 제작에 참여했던 도공들이나 제주 전통옹기 복원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에 대한 생애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풍부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옹기업과 여기에 종사했던 도공들의 생애사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재래공업의 역사 혹은 기술의 역사를 담아내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역사 및 지역민의 생활사, 곧 지방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재래공업이 그렇듯이 제주옹기업 또한 지역의 수요에 대응해 발생하였고, 의식주에 관한 소비재가 주 생산품이며, 원료와 자본과 노동 측면에서 향토성과 지역성이 강하다. 따라서 전지구화, 지방화 시대에 지역의 전통문화가 더욱 각광을 받으면서, 제주 전통옹기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제주 전통옹기와 비슷한 경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볼 때 다른 지역 재래공업의 문화유산 만들기 과정과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들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창연. 1997. “제주도의 도요지.” 『제주도의 민속유적』, 제주도.
 _____. 2002. “제주옹기와 제주도자기.” 『삶과 문화』, 제주문화예술재단.
 _____. 2004. “석요: 남제주군을 중심으로.” 『남제주문화원』 1, 남제주문화원.
 _____. 2006a. “제주의 전통옹기.” 『제주발전포럼』 18(여름), 제주발전연구원.
 _____. 2006b. 『제주의 옹기』, 제주도돌문화공원.
 _____. 이경호. 2000. 『제주전통도예』, 가시아히출판사.
 권병탁. 1969. “이조 말기의 농촌직물 수공업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숙인. 1998. “역사와 전통을 중심으로 한 관광의 생산.” 『국제지역연구』,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김경자. 1998. “옹기공방의 현황 및 유통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영. 1983. “제주도 허벅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상수. 1991. “개화기 한국공업입지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순자. 2006. 『와치와 바치』. 각.
- 김영문. 1979. “옹기 문양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룡. 1990. 『한국고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은석. 1990. “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고찰: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일대를 중심으로.” 『제주교육대학논문집』.
- 김재희. 1983. “한지공업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전주한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신. 2010. “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와 연원.” 『탐라문화』 3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김한주. 1946. “이조시대 상업과 수공업과의 관계.” 조선과학자동맹 편찬, 『이조사회경제사』. 노농사.
- 노도양. 1969. 『15세기 조선의 산업에 대한 지리적 고찰』. 동아출판사.
- 박양춘·이철우·박순호. 1995. “우리나라 재래공업 산지의 사회적 분업.” 《대한지리학회지》 30(3).
- 박찬석. 1976. “전통공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집』 6.7.
- 신혜란. 1998. “태백, 부산, 광주 의 장소마케팅 전략 형성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재식. 1987. “제주도 옹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중식. 1983. “한국근대 옹기공방의 실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염미경. 2003. “지방산업도시 성장정치의 현재와 미래.” 《경제와 사회》 60.
- . 2010. “근대 산업유산의 활용과 지역활성화.” 《지역사회학》 12(1).
- 오영심. 2002. “제주도 전통사회의 옹기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 대정읍 구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창윤. 2010. “제주옹기에 관한 연구: 제주 돌가마 축조와 옹기관광제품생산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낙기. 1965. 『제주도』. 한국지리연구소.
- 이경효. 1998. “제주도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희. 1984. “한국옹기의 지역별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창. 1996. “옹기의 제작 기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철우. 1997. “안동 삼배 수공업산지의 생산유통체계와 지역분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 이청일. 1985. “한국 전통수공업의 지리학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경. 1982. “창녕산지공업의 입지.”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전석담. 1946. 『이조농민경제사』. 『이조사회경제사』. 조선과학자동맹 편찬, 노농사.
- 정근식. 1998. “지역활성화와 장소마케팅.”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1(1). 전남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 조승현. 1984. “광산군 분양면 완초공업의 존립형태와 지역구조.” 『전남대학교논문집』 29.
- . 1985. “신홍가내공업의 지역구성과 존립형태: 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연의 옥돌공업업을 중심으로.” 《용봉논총》 15.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 1992. “전남 삼배수공업의 존립형태와 지역구조의 변천: 전남 보성군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21.
- . 2004. “광주·전남지역 재래공업의 지리학적 연구.” 성신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희춘. 2008. 『제주 고대항로를 추적한다』. 주류성 출판사.
- 진관훈. 2007. “제주도 전통옹기의 생산과 유통.”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40주년 기념 ‘동아시아속의 제주 도민속’ 국제학술회 발표문 요약집』. (2007. 5. 4).
- 한홍렬. 1989. “한국전통수공업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형기주. 1975. “한국공업입지의 전개과정(1).” 『지리학』 13.

_____. 1976. “한국 공업입지의 전개과정(2).” 『지리학』 14.

<제주의 소리>, 2008년 8월 29일.

<한겨레신문>, 2006년 5월 24일.

<한라일보>, 2005년 1월 6일.

이철우. 1991. “農村地方農業に關する經濟地理學的研究.” 名古屋大學校博士學位論文.

辻本芳郎. 1978. 『日本の在來工業』. 大明社.

泉靖一. 1966. 『濟州道』.

Ashworth G. J. & Voogd H. 1990. *Selling the City: Marketing Approach in Public Sector Urban Planning*. Belhaven Press.

Griffith, R. 1995. “Cultural strategies and new modes of urban intervention.” *Cities* 12(4).

Kearns G. & Philo, C. 1993. *Selling Places: The City as Cultural Capital, Past and Present*. Pergamon Press.

염미경은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에 재직 중이며, 도시/지역사회학, 산업사회학, 문화사회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이주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전자우편은 mgyeum@jejunu.ac.kr이다.

(2011. 1. 15. 접수; 2011. 2. 7. 수정; 2011. 2. 14. 채택)

A Cultural Heritage Making of Jeju Onggi as an Interest Conflictual Process

YEUM Mi-Gyeong(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check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traditional Jeju Onggi industry which went off was made as a cultural heritage in Jeju area,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among interest groups which circled restoration and succession of traditional pottery. The material used for an analysis in detail in addition to the document material is the interview material of depths with the persons of organizations and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persons concerned who have made an effort for Jeju Onggi restoration, and interview material of emotional depths with the potters who participated in traditional pottery production. The early stage restoration process of the Jeju traditional pottery had been led by private organizations with the potters who participated in traditional pottery production. By the middle stage of 2000's restoration work of Jeju Onggi was saying that it concentrated on arranging and telling the reproduction of Jeju traditional Onggi and its value through a traditional portable shrine's restoring mainly. After the opening of Jeju Onggi Museum in 2010, restoration and succession of Jeju Onggi have constructed as a cultural heritage making of Jeju Onggi and in commercializing dimension for sightseeing.

Key words: Jeju Onggi, Jeju Onggi industry, restoration of traditional Onggi, making a cultural heritage, Jeju area